

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

—연암 박지원의 <백이론> 상하 다시 읽기—

이흥식*

<차례>

1. 서론
2. 박지원과 백이를 둘러싼 논의들
3. <백이론>상, 동도론(同道論) 다시 읽기
4. <백이론>하, 상수론(相須論) 다시 읽기
5. <백이론>상하에 드러난 박지원의 의식 지향
6. 남은 문제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백이 수용의 제 양상과 백이 비평 담론의 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 목표 아래 기획되었다. 사마천의『사기』그 중에서<백이열전>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읽힌 텍스트인데, 이에 대한 열독은<백이열전>에 대한 정치한 비평을 가능하게 했고 백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평과 담론에 대한 연구는 백이 수용 양상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연암 박지원의<백이론>상하 편을 분석 텍스트로 삼아, 그간의 논의를 재점검하고 그 속에 담긴 박지원의 의식지향을 살펴 조선후기 백이 수용과 백이 담론의 한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백이론으로 대표되는 백이 담론의 사적 맥락, 즉 정은·김시습·윤기·오재순·송문흠·박제가·성해응 등의 백이 담론 속에 박지원의<백이론>을 둬으로써 새로운 읽기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 연구자들은 연암의<백이론>을 정치적 맥락, 즉 북벌과 북학의 틀 속에서 이해하였지만, 연암의<백이론>과 북벌론은 생각보다 그 관계가 매우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느슨하고 백이에 대한 비판 의도 또한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백이론>상하 편이 북벌과 북학의 자장 속에서만 논의될 수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백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백이 담론과 더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암은<백이론>을 통해 백이에 대한 당 대의 단선적 이해를 지양하고 입체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편에 서는 수직적 구도 속에서 백이와 무왕과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하편에서는 수평적 구도 속에서 백이와 미자·비간·기자·태공과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기왕의 백이 담론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2차원의 좌표 위에서 백이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 었다. 경도와 권도, 명분론과 혁명론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고, 미자·비간·기자· 백이·태공 등으로 대표되는 군신관계와 그것을 규율했던 에토스의 차이를 갈등 없이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지원의 이러한 지향은 인을 중심으로 한 그의 처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설정한 거시적 목표 속에 이상의 결론을 배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부 가치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다. 연암 당시에도 오재순, 윤기, 송문흠, 박제가, 성행 응 등 여러 인물들이 백이 담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양한 비평론을 양산하고 있었으며, 그 주된 논의 범주가 경도와 권도, 명분론(의리론)과 혁명론, 군신관계를 규율했던 에토스, 그리고 인(인)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평 담론 의 논의 범주는 백이 수용의 범주와 그 방향을 규명하는 데 차후 일정 이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박지원, <백이론>, 백이 담론, 의식지향, 북벌(北伐), 북학(北學), 군신관계, 에토스

1. 서론

사마천의『사기』는 조선조 내내 역사와 문학 분야의 필독서로 수많은 문인지식인들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백이열전>은『사기』의 총

서로 이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입전 대상인 백이가 군신 관계와 그것을 규율했던 에토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백이열전>에 대한 정치한 비평을 가능하게 했다면,¹⁾ 후자에 대한 관심은 백이의 행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²⁾ 연암 박지원의 <백이론>상하는 후자의 맥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문의 정제된 법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체제나 형식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내용과 주제의식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다만 체제나 형식에 있어서는 합의된 결론이 도출된 상태이지만,³⁾ 내용과 주제의식 측면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개진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백이를 북벌의 상징으로 파악하여 북벌과 북학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고, 그 결과 두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었다.⁴⁾ 물론 이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의 지점들이 존재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백이를 북벌과 북학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지양하며 영조의 왕위

-
- 1) 조선시대 <백이열전> 비평 자료의 현황과 독법의 양상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정우봉, 『한문 산문의 분석 방법과 실제 비평-조선시대 <백이열전> 비평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 2) 조선시대 백이 고사의 수용 양상과 백이론의 분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강혜정, 『백이 속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3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김영은, 『백이론의 전통과 박지원의 백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 본고에서는 작품의 체제나 형식에 보이는 미적 특징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강혜선, 『박지원 산문의 고문 변용 양상』, 태학사, 1996. ; 김영은, 앞의 논문.
 - 4) 김철조, 『연암 박지원의 사유양식과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강혜선, 앞의 책. ;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 강혜정, 앞의 논문. ; 김영은, 앞의 논문. 학위논문이 책으로 출간된 경우 책의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계승 문제와 연결하여 ‘소론과 영조에 대한 비판과 노론의 변명’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⁵⁾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박지원의 인식론과 결합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진실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므로, 무조건 백이만이 정당하고 무왕은 잘못했다는 시선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⁶⁾

이러한 차이들은 작품 해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의 지점에서 작품 해석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싹트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서로 상반되는 해석마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접근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읽기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작품을 재점검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백이론>상하에 드러나 있는 박지원의 의식지향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논의를 타당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꾀하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박지원의 문학과 사유의 틀, 즉 복학의 틀 내에서 두 작품을 해석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그러나 기실 이 두 작품은 복학과의 연결 고리가 튼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백이론’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기왕의 백이론을 일괄해 보면 세 가지 논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첫 번째는 백이 행적에 대한 진위 문제를 논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무왕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며, 그 세 번째는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박지원이 두 작품에서 논한 것 또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백

5)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 『동방학지』12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6)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태학사, 2005, 70면.

이론의 사적 맥락까지 포괄하여<백이론>상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박지원 백이론의 특징을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 그 맥락 속에서 위치하는 지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박지원과 백이를 둘러싼 논의들

박지원의<백이론>상하에 대한 기존 해석은 대체로 북벌과 북학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당대의 북벌론자들이 백이를 존화양이의 상징으로 이해했다는 점과 박지원이『열하일기』의 관내정사 등에서 백이로 대표되는 북벌론자들을 비판했다는 점들이 이러한 해석에 강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북벌과 북학의 대립 속에서 작품을 이해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종주는 박제가의<존주론(尊周論)>및<백이태공불상패론(伯夷太公不相悖論)>과 박지원의<백이론>하를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시켰는데, “화이론에 근거한 북벌론의 바탕은 곧 백이 중심의 의리론, 주나라 중심의 대일 통론에 있는 셈인데, 정유와 연암은 그 북벌론 성립의 기본적 논리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⁷⁾라는 언급에서 그 해석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근거로 백이의 상대화를 말하고 있는데, 백이의 상대화는<백이론>하에 보이는 상수론(相須論)에서 찾고 있다. 상수론의 요점을 “국가의 흥망이라는 동일 상황에 임하여 출처가 달랐던 모든 인물에게 상대적으로 개체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해 주는 것”⁸⁾으로 정리함으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 즉 백이 이미지의 절대화가 붕괴된 지점에

7) 이종주, 앞의 책, 112면.

8) 이종주, 앞의 책, 112면.

서 해석이 출발한다.

다만<백이론>상을 배제한 채<백이론>하만을 다룸으로써 그 논의 속에는 논리의 불완전함이 배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불완전함은 김철조에 이르러 일소된다. 물론 작품 해석의 맥락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백이론>상에서도 백이의 상대화를 읽어냄으로써 이전 논의를 강화한다. “백이의 존재와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며, 무왕에게 있어서도 균등한 의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이다. 여기서 균등하고 독자적인 의의가 밝혀지거니와, 백이 역시 절대적 의의는 상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암의 문제의식은<백이론>하에서 더욱 확대된다.”⁹⁾라는 언급에서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위 두 논의의 키워드는 상대화이다. 물론 이 상대화는 ‘백이=복벌’, ‘복벌⇔복학’이라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백이의 상대화가 곧 복벌의 상대화이고, 복벌의 상대화가 곧 복학의 긍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허술할 경우 해석의 타당성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된다.¹⁰⁾<백이론>상에서 무왕과 백이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가?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同道論)은 상대론에 상응하는가?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에 대한 다른 해석은 불가한가? 그 외 각각의 연결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문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야만 타당한 해석으로서의 권위를 유지

9) 김철조, 앞의 논문, 184면.

10) 이현식은 앞의 논문에서 이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백이에 대한 논의라고 해서 무조건 춘추대이나 복벌론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이의 절의는 왕조의 교체 등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과 관련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백이론>두 편은 『열하일기』의 경우처럼 춘추대의와 관련된 문맥도 없을 뿐 아니라 백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다.” ‘백이=복벌’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은 강혜선의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부상한다. 강혜선은 북벌과 북학의 관계에서 백이론을 이해했지만, 이상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해석을 곁을 달리하는데, 그 차이를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은 백이와 무왕의 상반된 입장을 서로 필요한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명분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또한 명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이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북벌론과 박지원 일파가 주장한 현실적인 북학론이 서로 대척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라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을 현실론과 명분론의 통합으로 이해함으로써 북벌과 북학을 병치했다. 상대화가 허물어진 지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인데, 이 차이는 북벌과 북학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시각차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해석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현실론과 명분론의 통합이란 명제 또한 <백이론>하에까지 적용하기에는 여러 난제들이 산재한다.

북벌과 북학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던 <백이론>상하는 이현식에 이르러 전변한다. 백이 이미지를 춘추대의나 북벌론 속에서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당대의 정치 상황과 연결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연암은 영조·노론·소론의 역학적 관계를 마치 무왕·여상·백이의 그것과 대비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을 대비시키면 무왕의 백이의 동도론은 영조와 소론의 결탁을 비판한 것으로, 다섯 인인의 상호의존론은 노론의 행적을 옹호한 것으로 읽힌다.”¹¹⁾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백이론>상하를 북벌과 북학의 관계 밖에서도 풀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그 실천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필자 또한 긍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영조·노론·소론의 역학

11) 이현식, 앞의 논문, 363면.

관계가 무왕·여상·백이의 역학 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자·미자·비간의 의미도 밝혀지지 않아 미완의 결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백이론의 역사적 전통 위에서 박지원의 백이론을 새롭게 조명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 이전까지의 논의들은 대체로 박지원과 당대의 정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백이론의 사적 맥락이 탈각시킨 것에 반해, 김시습 이후 남아 전하는 백이론의 전통 위에서 박지원의 백이론을 재조명하려 하였다. 다만<백이론>상하에 녹아 있는 기존 백이론의 흔적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였고, “<백이론>은 백이로 대변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 글이다. … 조선후기에 백이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존화양이의 명분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연암은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효용성을 상실한 춘추대의의 명분에만 붙들린 자들을 경계했다.”¹²⁾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기존의 논의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맥락 속에 두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3.<백이론>상, 동도론(同道論) 다시 읽기

- ① 『사기』에 무왕이 주를 치러 나서자 백이가 말고뼈를 끌어당겨 못 가도록 하며 충고했고,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자 백이는 이를 수척스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논한다.
- ② 백이가 무왕에게 충고한 사실은 경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제나라 동쪽 시골 사람들의 말인데 사마천이 취하여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었으니 이는 믿을 것이 못 된다. 비록 그렇지만 이 책을 믿을진댄 논의

12) 김영은, 앞의 논문, 66면.

할 거리가 있을 수 있다.¹³⁾

<백이론>상의 시작 부분이다. 『사기』의 <백이열전>에 실려 있는 백이의 절행을 간략히 제시하고, 그 역사적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여 의론의 단서로 삼고 있다. 이는 학사대부들이 고금시세(古今時世)의 인물을 의론하거나 혹은 경사(經史)의 말을 평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¹⁴⁾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단락을 두고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사기』에 기록된 백이의 사적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한 말에 주목하여, 연암이 ‘존주론-춘추의리-북벌론’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의 연원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⁵⁾ 연암이 백이 이미지에 덧씌워진 북벌론을 비판할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연암이 ‘역사적 사건을 취할 때 그대로 취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자신의 뜻으로 새롭게 적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는 데 끌어 썼던 정황’을 들어, 신뢰하지 못할 기록임에도 <백이열전>을 전거로 삼았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둘 모두 지나친 의미 부여로 보인다. 연암이 ‘사마천의 기록이 믿을 것이 못 되지만 논의할 거리가 있다’고 말했던 것은, 북벌을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백이론의 전통에서 보자면 사마천의 <백이열전>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오류

13) 朴趾源, 『燕巖集』, <伯夷論>上. 이후 인용하게 될 <백이론>상의 번역문은 신호열·김명호가 옮긴 『연암집』(돌베개, 2007)을 저본으로 하며, 제한된 원고 분량으로 인해 원문을 따로 부기하지 않음을 밝힌다.

14) 강혜선, 앞의 책, 101~102면.

15) 김혈조, 앞의 논문, 182면.

16) 김영은, 앞의 논문, 35면.

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계속 되었다. 백이 행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공자와 맹자의 말이 전하고,¹⁷⁾ 그 말에 담겨 있는 도(道) 때문이었다.¹⁸⁾ 까닭에<백이열전>에 대한 의심이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인지식인들이<백이열전>의 행적을 토대로 백이를 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첫 두 단락은 이러한 정황을 말한 것일 뿐이다. 특별한 의미 부여가 필요한 지점이 아니다.

③ 백이는 이른바 천하의 대로요 현인이므로 서백이 일찍이 예의를 갖추어 그를 봉양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무왕의 측근 신하들이 백이를 무기로 치려고 했던 것이다. 아! 선왕이 예의를 갖추어 봉양했던 신하이자 천하의 이른바 대로요 현인인데도, 측근의 신하들이 곧장 그 앞에서 무기로 치려고 했더니, 무왕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무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식이었다. 그러니 접매 태공이 아니었던들 백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겠는가?

④ 옛날에 이윤은 한 사람의 필부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그를 떠밀어 도랑 속으로 처넣은 것같이 여겼으며,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이를 죽여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또한 무왕의 뜻이기도 하다.

17) 成海應, 『研經齋集』, <伯夷辨>, “事在千古之上, 杳茫不可徵者, 必考信乎古人之言. 然古人之言, 有駁有粹, 不無可擇者, 則不若折衷乎聖人之言, 爲可定也. 聖人不之言, 則斯闕之矣.”

18) 몇 가지만 예시하면 이렇다. 宋文欽, 『閒靜堂集』, <伯夷論>上, “伯夷之傳, 吾以爲好事者爲之也. 雖然不事周者, 伯夷之道固然也. 惡得疑其跡而并廢其道哉.”; 吳載純, 『醇庵集』, <伯夷論>, “或又以爲孔子孟子之論伯夷, 可謂詳矣. 猶未及斥周之說, 特司馬氏著之於史, 此何足信也. 凡史說之不可信者, 亦惟不經而害義者已矣. 春秋絕, 而天下無信史, 其不至不經而無害於義者, 固不得不信, 況經而合義者, 其可不信耶.”

무왕은 아마도 천하를 향해 “은나라 백성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주나라가 장차 일어날 적에 대로요 현인이라는 이가 제자리를 얻지 못했으니, 무왕이 천하를 얻은 것은 아마도 백성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 무왕은 천하를 향해 외치기를 “은 나라가 노성(老成)한 사람의 말을 저버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나라가 장차 일어날 적에 대로요 현인이라는 이가 불의를 충고했으니, 무왕이 천하를 얻은 것은 아마도 충고를 듣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 천하를 향해 외치기를 “은 나라가 죄 없는 이를 죽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나라가 장차 일어날 적에 대로요 현인이라는 이가 온전히 죽음을 맞지 못했으니,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것은 아마도 죄 없는 이를 죽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릇 이 세가지는 무왕이 남을 정벌한 명분이었는데도, 난폭하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말인가?

- ⑤ 무왕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 주고, 비간의 무덤에 봉분을 해 주고, 상용의 마을을 지나갈 때 수레에서 경의를 표했으면서, 유독 백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아! 살았을 때는 예의를 갖추어 봉양하기를 문왕과 같이 하고, 그가 떠날 적에는 신하로 대하지 않기를 기자와 같이 하고, 의롭게 여겨 표창하기를 상용과 같이 하고, 그가 죽었을 적에는 봉분하기를 비간과 같이 해야 옳았을 것이다.

중심단락이며 문제의 지점이다. 세부 단락별 해석은 기왕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논란이 되었던 점들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부분은 ‘백이론’이란 제목에 걸맞지 않게 무왕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전면에 있어야 할 백이는 없고 무왕만 보일 뿐이다. 백이론이 아니라 무왕론으로 보이게끔 만드느, 이러한 서술의 낯설음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절대화되었던 백이의 존재가 상대화 되고, 상대화의 크기만큼 무왕의 존재 가치

가 상승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¹⁹⁾ 서술 시점의 변화에서 상대화의 가능성을 보았는데, 일견 수긍할 만한 견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서술 시점의 변화보다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라는 사실이다. 즉 무왕을 통해 백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글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글에서 무왕만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왕을 통해서 백이는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 백이를 죽이려 했던 무왕의 무도한 행동(③), 무왕의 혁명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자기모순(④), 사후의 부당한 처리(⑤)는 뒤집어 놓고 보면 백이의 명분론이 정당성을 얻었던 힘의 원천이다. 무왕의 권도가 허물어지는 지점에서 백이를 백이답게 만드는 명분론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 지점에서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었다”(以暴易暴)고 한 채미가(采薇歌)의 한 구절이 생각나고, 죽음을 무릅쓰고서 말고삐를 잡고 간하던 백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러한 서술 시점의 변화는 오히려 연암의 글쓰기 전략 내지 표현의 난숙함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백이를 상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백이와 무왕과의 모순 관계, 즉 명분론과 혁명론이 부딪히는 지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백이론의 맥락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 글이 고문의 법도를 잘 구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논에 비해 재밌게 읽히는 것도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연암의 서술 전략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⑥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탕과 백이와 무왕은 똑같은 생각이

19) 김철조, 앞의 논문, 181~184면.

었다. 그들은 천하와 후세를 위해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탕 임금 이 길을 내쳤는데도 천하 사람들이 흠족해하며 아무도 괴이하게 여기는 자가 없자, 탕 임금은 진실로 이미 염려하기를 “나는 후세 사람들이 나를 구실로 삼을까 걱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왕이 마침내 그 뒤를 따라 그와 같은 일을 행했으니, 천하 사람들이 또 흠족해하며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후세를 위하여 염려됨이 진실로 클 것이다. 그러므로 백이가 무왕을 비난한 것은 그의 거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리를 밝혔을 따름이며, 무왕이 백이의 봉분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그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의리를 밝게 드러냈을 따름이니, 천하와 후세를 염려한 점은 똑같았다.

- ⑦ 아! 예의를 갖추어 봉양한들 그의 의리를 후세에 밝히기에는 부족하며, 표창한들 그의 의리를 후세에 밝히기에는 부족하며, 신하로 대하지 않은들 그의 의리를 후세에 밝히기에는 부족하며, 봉분을 만들어 준들 백이를 후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글의 마지막 단락이다. 앞서 무왕을 한껏 놀렸다가 다시 치켜 올려 무왕을 다시 성(聖)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는 백이와 무왕의 동도론으로 의론을 마무리했는데, 이 동도론으로 수렴되는 역양의 수사법은 이 글을 읽는 재미를 한껏 높여준다. 탕왕과 무왕의 혁명론은 역대 사가들로부터 권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정도인 백이의 명분론과 공립하게 되는데, 그 결과 천하를 위했던 무왕과 후세를 걱정했던 백이의 구도가 성립하게 된다.²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혁명론과 명분론 사이의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폭군을 몰아내어 천하 백성을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임금을 친 난폭함[以暴易暴]의 문제, 즉 권도로 정도

20) 金時習, 『梅月堂集』, <伯夷叔齊贊>, “愚謂夷齊之所以言如此者, 蓋周武王雖伐罪弔民, 其時父喪在殯, 尙不葬其屍, 而於衰經之中, 以臣伐君, 則武王之暴, 尤甚於紂.”

를 뒤엎은 허물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탕이 걸을 내치고 무왕이 주를 친 것은 권도이다. 지극한 인으로 지극한 불인을 쳐 하늘이 허여하고 사람들이 돌아갔으니, 권도이나 중을 얻었다. 백이는 경을 지키고 그 바름을 바꾸지 않은 자이다. 성탕은 걸을 내치고 오히려 참회하는 덕이 있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후세에 나로써 구실을 삼을까 두렵다.” 백이는 그것을 알았다. 무왕은 성인이고 백이도 성인이지만 무왕은 쳤고 백이는 섬기지 않았다. 물과 불이요 남과 북일 뿐만이 아니다. 성인 또한 같지 않은 것인가? 무릇 도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 있다. 기자 또한 성인이다. 무왕이 신하로 삼지 않은 것이 어찌 다만 백이뿐이겠는가?²¹⁾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탕왕이 “나는 후세에 나로써 구실을 삼을까 두렵다”라고 한 말을 끌어 들인다. 권도가 경도 위에 서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즉 권도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반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무왕의 경우에는 백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백이가 경도를 부르짖고, 무왕이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그 의를 밝혀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무왕이 다른 신하들과 다르게 백이에게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백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연암의 논리이다. 역대 백이론에서는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을 권도와 경도의 관점에서 논했을 뿐 그 사이에 놓인 갈등을 온전히 봉합하지 못하였는데, 연암에게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21) 宋文欽, 『閒靜堂集』, <伯夷論>下, “湯放桀, 武王伐紂, 則權也. 以至仁伐至不仁, 天與之人歸之, 權而得其中也. 伯夷守經而不變其正者也. 成湯放桀, 猶有慚德, 曰予恐來世以台爲口實. 伯夷其知之矣. 武王聖人也, 伯夷聖人也, 武王之伐焉, 而伯夷之不事, 不翅水火也南北也. 聖人亦不同歟. 夫道固有然者. 箕子亦聖人也, 武王之所不臣也, 豈特伯夷哉.”

세상에서 무왕과 백이를 논하는 자들은 “맹진을 건넌 일이 이치에 맞다면 백이는 인이 되지 못하고, 서산에서의 죽음이 바르다면 무왕은 성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설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으니, 이는 모두 하나만 가지고 논한 것이다. 무릇 무왕은 권도(權道)를 행하여 천명에 순응한 자이고, 백이는 경도(經道)를 잡고 사람의 기강을 바로잡은 자이다. 무왕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임금이 없었을 것이고, 백이가 아니었다면 후세에 임금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각자 그 뜻을 행하여 한결같이 천리의 바름을 따른 것이니, 이 모두 성인이 일이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²²⁾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이의 존재가 무왕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무왕 또한 백이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천하와 후세를 염려한 점은 똑같았다”는 동도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무왕을 한껏 낮추었다 높이는 역양법과 무왕을 통해 백이가 드러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결말 부분은 자칫 백이의 상대화로 읽힐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백이와 무왕이 관계망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이와 무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대 백이론에서 공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백이가 무왕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³⁾ 연암 또한 백이가 무왕

22) 吳載純, 『醇庵集』, <伯夷論>, “世之論武王伯夷者, 以爲孟津之事, 順則伯夷不得爲仁, 西山之死正, 則武王不得爲聖. 互有異說, 紛紜不已, 是皆執一之論也. 夫武王, 行乎權而順天命者也, 伯夷, 執乎經而正人紀者也. 非武王, 當時無君, 非伯夷, 後世無君. 此蓋各行其志, 一循乎天理之正, 是皆聖人之事, 而未嘗相悖也.”

23) 鄭蘊, 『桐溪集』, <太公扶伯夷論>, “夫伯夷何如人也. 兄弟遜位, 弊屣其國, 而終身隱淪, 無所怨尤, 則茲非仁人乎.”; 車天輅, 『五山集』, <伯夷死名說>, “吾夫子美之曰, 伯夷不念舊惡, 怨是用希. 又曰, 求仁得仁, 又何怨乎.”; 宋文欽, 『閒靜堂集』, <伯夷論>下, “然則, 伯夷非武王而怨周歟. 當殷之衰, 箕子之答微子也, 祖伊之告紂也, 皆戒天威閔國難, 未有一言懟周也. 伯夷之意, 亦猶是也.”; 成海應, 『研經齋

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의리를 밝힌 것이라 했다. 백이의 원망이 담기지 않은 간언으로 무왕 또한 혁명의 자기모순을 인식하고 백이의 의리를 만세에 드러낼 수 있었던 만큼, 백이와 무왕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백이의 상대화를 읽어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백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무왕론처럼 기술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서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무왕을 중심에 두고 기술함으로써 백이의 마음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김택영이 말했던 이 글의 힘이 아닐까 싶다. 더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위 예시문에서 보듯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은 박지원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절대화되었던 백이 이미지가 상대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백이와 무왕은 그 속성 상 관계 속에서 자기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런 관계 속에서 백이와 무왕을 조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상기할 때 상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다. 이 글이 백이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으로 읽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왕과 백이의 동도론을 현실론과 명분론의 통합으로 이해하여 북벌과 북학을 병치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기실 여기서 현실론이라 명명된 것은 군신 관계에서 보면 혁명론이다. 이처럼 현실론의 범주를 축소시켜 혁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무왕의 현실론이 바로 명분론의 대척이 되는 혁명론이라고 했을 때, 현실론으로서의 북학과 명분론으로서 북벌이 통합된다는 인식의 확장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왕과 백이 사이에 일차적으로 부

集』, <伯夷辨>, “余竊謂夷齊之心, 以伐紂爲不可, 則不啻若橫政之不可一日居橫民之不可一日處, 固已於伐紂之前, 違去之矣. 且鄉人之與處而猶望望然耻辱焉, 則豈肯躬詣於屨賁之列, 自挽武王之駕而諫止乎.”

뒤틀리는 것은 현실론과 명분론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혁명론과 명분론 사이의 대립이다. 백이가 백이다워진 것은 이신벌군(以臣伐君)을 간한 데 있기 때문이다.

4.〈백이론〉하, 상수론(相須論) 다시 읽기

〈백이론〉하는〈백이론〉상보다 분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다. 김택영이 이 하편보다 상편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찬찬히 읽어보자.

- ① 공자가 옛날의 인자를 칭송했으니, 기자·미자·비간이 이들이다. 이 세 분의 행실이 각기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 인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맹자가 옛날의 성인을 칭송했으니, 이윤·유하혜·백이가 이들이다. 이 세 분의 행실이 각기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 성이라는 칭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② 저 태공은 옛날의 이른바 대로요 현인이었으니, 그 행실은 백이와 똑같고 도는 이윤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자는 그의 인을 칭송하며 세 분의 인자와 함께 나열하지는 않았으며, 맹자도 그의 성을 칭송하며 세 분의 성인과 함께 나열하지는 않았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글의 도입 부분으로 상편과 동일한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논어』와 『맹자』에 실려 있는 인자와 성인에 대해 간략히 말하고, 그 속에서 논제를 끌어내고 있다. 공자는 인자를 일컬으며 세 사람만 말했고, 맹자 또한 성인을 일컬으며 세 사람만 말했다. 공자와 맹자에 의해 거론된 여섯 사람들은 모두 인자와 성인으로 역대에 걸쳐 칭송되었지만, 유독 함께 거론

된 점이 없었다는 의문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태공을 끌어들이고 이윤과 유하혜를 빼버렸다. 이는 전편처럼 은주 교체기의 군신 관계망 속에서 백이의 위치를 재점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를 두고 연암이 권위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으로 읽는 것²⁵⁾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 충분히 논제로 삼을 만한 주제이고, 이후 인이나 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맹의 도에 크게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연암 사유의 진보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 ③ 아! 내가 은나라를 살펴보면 그 나라에는 다섯 분의 인자가 있지 않았을까? 어쩌서 ‘다섯 분의 인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백이와 태공을 합해서 하는 말이다. 저 다섯 분의 인자들은 소행은 역시 각자 달랐지만, 모두 절실하고 간곡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기다려야만 인이 되고, 서로 기다리지 않을 경우 불인이 되는 처지였다.
- 미자는 속으로 ‘은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 터이니, 내가 충고할 수도 없는데 충고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은나라의 종사를 보존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서 마침내 나라를 떠났으니, 미자는 비간이 왕에게 충고해 줄 것을 기다린 것이다.

24) 관계망 속에서 백이를 논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태공이다. 무왕의 혁명을 도와 권도로서의 정당성을 완성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상하 관계에서 백이는 무왕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수평 관계에서 백이는 태공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왕을 성인으로 일컬은 다음에 태공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시 빠지는 결과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백이와 태공의 동도론을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태공을 온전히 부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도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재로 인정을 하되 백이와 충치를 두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尹櫛의〈伯夷太公不相悖論〉이 대표적이다. 백이와 태공의 동도론을 말한 글로는 鄭蘊의〈太公扶伯夷論〉, 金時習의〈伯夷叔齊贊〉, 朴齊家는〈伯夷太公不相悖論〉등이 보인다.

25) 김철조, 앞의 논문, 185면. ; 김영은, 앞의 논문, 42면.

비간은 속으로 ‘은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 터이니, 내가 충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충고하지 않느니 차라리 날같이 충고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서 마침내 충고하고 죽었으니, 비간은 기자가 도를 전해 줄 것을 기다린 것이다.

기자는 속으로 ‘은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 터이니, 내가 도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도를 전하랴’라고 생각하고서 마침내 거짓으로 미친 척하다가 잡혀서 종이 되었으니, 기자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비록 그러하나 인자의 마음은 하루라도 천하를 잊지 못하는 법이니, 기자는 태공이 백성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다린 것이다.

태공은 속으로 자신을 은나라의 유민으로 생각하면서, ‘은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 터인데, 소사는 떠났고 왕자는 죽었으며 태사는 구금되었으니, 내가 은나라의 백성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장차 천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서 마침내 주를 쫓았으니, 태공 역시 서로 기다릴 사람이 없는 듯하다. 비록 그러하나 인자의 마음은 하루라도 후세를 잊지 못하는 것이니, 태공은 백이가 의리를 밝혀 줄 것을 기다린 것이다.

백이는 속으로 자신을 은나라의 유민으로 생각하면서, ‘은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 터인데, 소사는 떠났고 왕자는 죽었으며 태사는 구금되었으니, 내가 그 의리를 밝혀 놓지 않는다면 장차 후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서, 마침내 주나라를 받들지 않았다. 무릇 이 다섯 분의 군자가 어찌 좋아서 그렇게 했겠는가? 모두 마지못해서 한 일이었다.

도입 단락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잘 밝혀 놓았다. 전편에서처럼 상황에 대한 가정이 서사의 재미를 더하는데, 다섯 인자를 하나의 관계망 속에 놓고 논의를 펼친 경우가 드물기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의리의 상수(相須)’란 개념을 통해 백이와 태공을 함께 논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지점에서 박제가의<백이태공불상패론(伯夷太公不相悖論)>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암은 다섯 신하가 행동은 달랐

지만 그 행동 속에 간절하고 절실한 뜻, 즉 인을 담았기 때문에 같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태공의 인은 천하 백성을 구휼한 것이고, 백이의 인은 만세 뒤의 사람들을 염려한 것이다. 연암의 이 논리로 인해 백이는 맹자가 말한 것처럼 성인일 뿐 아니라 인자의 지위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 더불어 백이에 비해 덜 부각되었던 태공도 군신 관계에서 신하들을 규율하는 에토스의 한 전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논란이 만들어졌다. 백이만을 논하지 않고 다른 네 인자와의 관계 속에서 백이를 논했다는 것과 태공을 같은 차원에서 논했다는 것이 논란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지점이다. 백이만을 추송하지 않고 미자·비간·기자·태공과 연결하여 논했다는 것은 분명 이 모든 인물들에게 상대적이고 개체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²⁶⁾ 상수(相須)의 의미를 강화하여 이들의 관계가 상호존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²⁷⁾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백이를 미자·비간·기자·태공과 같은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백이의 권위가 상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볼 점이 있다.

“백이와 이윤은 어떠합니까?” “같지 아니하다. 그 임금이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서는 자는 백이이다.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리건 백성이 아니냐고 하면서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나아가는 이는 이윤이다. 벼슬을 할 만하면 벼슬을 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 두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빨리 떠날 만하면 떠나는 이는 바로 공자이다.”²⁸⁾

26) 김혈조, 앞의 논문, 186면. ; 이종주, 앞의 책, 112면.

27) 이현식, 앞의 논문, 357~361면.

28) 『孟子』, <公孫丑>, “曰伯夷伊尹如何. 曰不同道.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

이런 까닭에 선비가 나아가고 물러남과 벼슬하고 하지 않음은 반드시 그 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도를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헤아릴 뿐이다. 반드시 물러나면 현명하고 나아가면 아첨하는 것이거나, 은거하면 고상하고 벼슬하면 구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를 당하여 떠나는 것이니, 미자가 주 임금을 만났지만 상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나아갈 때를 당하여 나아갔으니,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나아간 것을 두고 뜻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은거할 때를 당하여 은거한 것이니, 백이와 숙제가 서산에 숨었지만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벼슬할 때를 당하여 벼슬했으니, 여망이 위무를 떨쳤지만 구차하다고 말할 수 없다.²⁹⁾

화평하여 넘치지 아니 함은 유하혜의 일이고,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음은 백이의 일이며, 옹색해도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은 것은 이윤의 일이고, 죽음에 이르러 변하지 않은 것은 기자와 비간의 일입니다.³⁰⁾

하편에서 논하는 것과 상편에서 논했던 것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상편에서는 군신 간의 수직적 구도 속에서 권도인 혁명론과 경도인 명분론의 관계를 논했다면, 이 글에서는 왕을 전제한 신하 간의 수평적 구도 속에서 신하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인], 혹은 그 행동을 규율하는 에토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백이 또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그려지지도 않는

進，亂則退，伯夷也。何事非君，何使非民，治則進，亂亦進，伊尹也。可以仕則仕，可以止則止，可以久則久，可以速則速，孔子也。”

29) 金時習, 『梅月堂集』, <古今君子隱顯論>, “士之去就隱顯, 必先量其義之適與不適, 道之可行與不行而已. 不必去而賢, 就而諂, 隱而高尚, 顯而苟且也. 故當去而去, 微子去紂, 不可言背商. 當就而就, 伊傅就殷, 不可言奪志. 當隱而隱, 夷齊西山, 不可言高尚. 當顯而顯, 呂望鷹揚, 不可言苟且.”

30) 許薰, 『舫山集』, <答崔善起中庸問目>, “和而不流, 柳下惠之事, 中立不倚, 伯夷之事, 不變塞焉, 伊尹之事, 至死不變, 箕子比干之事.”

다. 맹자는 백이를 두고 좁대[隘]고 했고, 유하혜를 두고 불공(不恭)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이와 유하혜가 성인이 되지 않는가? 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성인이라 칭송했다. 연암이 결론 마지막에서 “한 가지 일로써도 인이 되기로 말하자면, 편협하거나 공손하지 못한 점이, 어찌 백이가 청렴해서 성인이 되고 유하혜가 화합을 잘해서 성인이 된 사실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준다. 위 예시문에 보이는 백이의 상대화와 불완전함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무왕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 인물들과의 비교는 백이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에 분명하다.

더하여 이러한 서술 속에 상대화 전략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백이에 대한 연암의 인식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상수(相須)에 준하는 연암의 논리 속에서 백이의 절행이 부정되거나 폄하되는 지점이 존재하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상대화만을 가지고 백이 이미지에 대한 비평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북벌의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비약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연암이 일관되게 북벌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것도 아니지 않는가? <초구기(貂裘記)>에서 연암은 장중하면서도 비감 어린 어조로 효종과 우암을 추모하면서, 북벌의 원대한 계획이 끝내 좌절되고 만 것을 애통해 하였다.³¹⁾ 연암 이미지의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④ 어떤 이가 “만약 서로 기다려서 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태공이 없었을 경우 기자가 목야의 대사(大事)를 치렀어야 하고, 백이가 아니었다면 태공이 말고삐를 끌어당겨 못 가도록 충고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31)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25~126면.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였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리를 기다릴 따름이니, 신포서와 오자서가 서로에게 고지(告知)한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나 왕자가 없었다면, 소사가 반드시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떠날 필요가 없었는데도 떠났다면, 소사는 인자가 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소사가 떠나지 않았는데도 왕자가 홀로 죽었다면, 왕자는 인자가 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왕자가 이미 죽고 소사가 이미 떠났는데도 태사가 거짓으로 미친 척하지 않았다면, 태사는 인자가 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태공이 천하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이가 후세 사람을 염려하지 않았다면 백이와 태공은 인자가 되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자가 주나라로 달아난 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요, 비간이 충고하다가 죽은 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요, 기자가 도를 전한 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요, 태공이 주를 친 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요, 백이가 주나라를 받들지 않은 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다.

나는 그러기에 백이와 태공의 도를 은나라의 세 분의 인에 합친 것이다. 이는 또한 공자의 뜻이었다. 공자가 태공을 칭송하지 않은 것은 아마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백이의 경우에는 자주 그 덕을 칭송하고,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또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감히 그를 세 분의 인자와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 무왕에게 누가 될까봐 말하기를 꺼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만약에 다섯 분의 인자가 합해야 온전한 인이 된다면, 어찌 수고스럽지 않은가?” 하기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일로써도 인이 되기로 말하자면, 편협하거나 공손하지 못한 점이, 어찌 백이가 청렴해서 성인이 되고 유하혜가 화합을 잘해서 성인이 된 사실을 가릴 수 있겠는가.”

이 글의 결론 부분이다. ‘의리의 상수(相須)’란 개념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미루어 단속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지만, 결론이라 하기에는

서술이 장황하고 매끄럽지 못한 흠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흠 덕분에 상수가 시공간적 인과나 논리적 인과와 다르며, 상호의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미자·비간·기자·태공·백이는 제 위치에 서 의리에 충실하였고, 부득이함에 의지해 행동했으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행동이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게 되었다. 물론 서로의 빈틈을 채워준 것은 의리이고, 이 채워줌으로 인해 편협하거나 공손하지 못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와 유하혜가 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인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다섯이 합쳐졌을 때 완벽한 하모니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 처지가 달랐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동도의 논리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본다.³²⁾ “태공이 백이를 부촉한 까닭은 그 몸이 아니라 그 의리를 부촉하기 위함이었다.”³³⁾라고 한 동계 정운의 말이 연암의 상수론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백이론〉상하에 드러난 박지원의 의식 지향

세상에서 무왕과 백이를 논하는 자들은 “맹진을 건넌 일이 이치에 맞다면 백이는 인이 되지 못하고, 서산에서의 죽음이 바르다면 무왕은 성인이 되지

32) 宋文欽은〈伯夷論〉下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은나라가 쇠함에 기자가 미자에게 답하고, 조이가 주에게 고하였다. 모두 하늘의 위엄을 경계하고 국난을 근심한 것이니 주를 원망한 말이 한 마디도 없었다. 백이의 뜻도 오히려 이와 같다. … 기자 또한 성인이다. 무왕이 신하로 삼지 않은 자가 어찌 유독 백이 뿐이겠는가?”(當殷之衰, 箕子之答微子也, 祖伊之告紂也, 皆戒天威閔國難, 未有一言懟周也. 伯夷之意, 亦猶是也. … 箕子亦聖人也. 武王之所不臣也, 豈特伯夷哉.) 백이가 무왕에게 간언했던 일을 기자가 미자의 물음에 답하고 조이가 주에게 고했던 일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연암이〈백이론〉하에서 논했던 것과 맥락이 상통한다.

33) 鄭蘊, 『桐溪集』, <太公扶伯夷論>, “觀其言曰是義士也, 則其所以扶之也, 非扶其身也, 乃所以扶其義也.

못한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설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으니, 이는 모두 하나만 가지고 논한 것이다.³⁴⁾

두 사람의 행동은 한 사람은 나아가고 한 사람은 물러났으며,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하였으니, 천하 후세의 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크게 갈지 않고 서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런 즉 두 사람의 마음이 이로부터 분명치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분명치 않고 보니 무왕의 마음이 분명치 않게 되었고, 무왕의 마음이 분명치 않으니 저 백이라는 사람 또한 일개의 고지식해서 일의 형세에 밝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뿐이다. 내가 이에 적이 두려움이 있기에 특별히 크게 써서 이렇게 말한다.³⁵⁾

연암이<백이론>상하를 쓸 당시 백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위 두 예시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오재순은 백이와 무왕을 모순관계로 이해하는 당대의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며<백이론>을 지었고, 박제가 또한 백이와 태공, 백이와 무왕의 사이의 동도론이 부정되는 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여<백이태공불상과론>을 지었다. 오재순이 말한 백이와 무왕의 동도론, 박제가 주장한 백이와 태공(무왕)의 동도론은 결국 연암이<백이론>상하에서 말한 논의와 일맥이 통한다. 연암의<백이론>상하가 백이론으로 대표되는 백이 담론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34) 吳載純, 『醇庵集』, <伯夷論>, “世之論武王伯夷者, 以爲孟津之事, 順則伯夷不得爲仁, 西山之死正, 則武王不得爲聖. 互有異說, 紛紜不已, 是皆執一之論也.”

35) 朴齊家, 『楚亭全書』, <伯夷太公不相悖論>, “二人者之行, 一出而一處, 一興而一亡, 使天下後世之論者, 遂以爲大不同而迥相殊也. 則二人者之心, 從茲而不明. 二人者之心不明, 則武王之心不明, 武王之心不明, 則彼伯夷者亦不過爲一偏枯不曉事之人而已也. 吾於是竊有懼焉.”

것은, 백이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백이의 절의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만 논의되지 않았으며, 그 논의가 백이의 절의로 상징되는 북벌의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백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시대와 무관하게 지속되었으며, 그 논의들이 문제의식으로 촉발되어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오재순의〈백이론〉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앞서 보았던 백이와 무왕의 동도론이요, 다른 하나는 ‘사마천의〈백이열전〉을 믿을 수 없다면 백이의 행적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논의에 대한 반론이다.³⁶⁾ 오재순은〈백이열전〉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맹의 의리와 일치하는 행적들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연암이〈백이론〉상에서 전제로 삼았던 것과 같은 인식이다. 오재순이 연암과 마찬가지로 사마천의〈백이열전〉을 토대로 백이와 무왕의 동도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동도론은 백이의 상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북벌 대의론의 부정으로도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무왕을 통해 백이의 절의는 더 뚜렷해졌다.

박제가의 경우에도 백이의 이미지를 상대화하기 위해 백이와 태공의 동도론을 논했다기보다는, 고금 군자의 은현(隱顯)에 대해 논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백이는 물러나 망하였지만 만대에 길이 남을 의리를 전

36) 吳載純, 『醇庵集』, <伯夷論>, “或又以爲孔子孟子之論伯夷, 可謂詳矣, 猶未及斥周之說, 特司馬氏著之於史, 此何足信也. 凡史說之不可信者, 亦惟不經而害義者已矣. 春秋絕, 而天下無信史, 其不至不經而無害於義者, 固不得不信, 況經而合義者, 其不可信耶. 且以紂之惡, 而身嘗避之, 及其亡也, 必致臣節, 是非孔子所謂不念舊惡歟. 以周之仁, 而身嘗歸之, 及其滅殷, 反不肯事之, 是非孟子所謂非其君不事歟. 然則孔子孟子之言, 已可以徵之. 特徵其辭耳. 其於伯夷所爲, 尙何疑乎. 若仁則事之, 不仁則去之, 是太公諸人亦皆能之, 是何足爲伯夷也. 嗚呼. 以匹夫之微, 與天子各任經權之宜, 垂萬世而炳烺如日星, 此其所以爲伯夷歟. 故曰是皆聖人之事, 而未嘗相悖也.”

하였고, 태공은 나아가 흥하였고 천하 백성을 구제한 이름을 얻었다. 백이와 태공은 경도와 권도 내에서 각자 인을 구현하였으니, 군신관계에서 역대의 군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백이[명분론]가 북벌로, 태공[현실론]이 북학으로 치환될 수 없다. 더하여 백이와 태공의 동도론이 박제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상기해보면, 동도론을 상대화의 차원에서만 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연암의<백이론>두 편은『열하일기』의 경우처럼 춘추대의와 관련된 문맥도 없을 뿐 아니라 백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다.³⁷⁾ 연암은 백이를 논하면서 상하를 구분하여 상편에서는 무왕과의 관계 속에서 백이를 논하였고, 하편에서는 미자·비간·기자·태공과의 관계 속에서 백이를 논하였다. 상편에서는 무왕의 혁명론과의 대비를 통해서 백이의 명분론이 제대로 규명되었고, 하편에서는 인의 차원에서 백이의 존재가 더욱 명확해졌다. 연암이 논한 백이 또한 권도를 지키고 인을 구현한 성인일 뿐이다. 연암이 백이를 논하면서 상하 편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백이의 행적은 표면적으로 무왕과 모순될 수밖에 없고, 기자 및 여러 신하들과 차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백이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엉뚱한 논의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연암의 백이론은 이런 논란을 종합한 것으로, 백이로 촉발된 기존 논의에 대한 합리적 해답이다. 과거 평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을 종합하여 2차원의 공간 속에 둥으로 써 백이의 존재감이 입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태백은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하였고 문왕은 천하를 삼분하여 그 둘로써 하나의 은을 섬겼으니 모두 지극한 덕이 된다. 미자는 주로 갔고, 기자는 조

37) 이현식, 앞의 논문, 362면.

선에 숨어 모두 인을 행하였다. 무왕은 상을 쳤고, 백이는 주를 섬기지 않아 모두 성이 되었다. 도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 있다. 성인이 천자가 되고, 이로써 성인이 섬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백세에 군신의 의리를 세워 사표를 삼는 까닭이다.³⁸⁾

위 예시문은 송문흠의<백이론>하 마지막 단락 부분이다. 백이와 무왕, 백이와 미자·기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성인이요 인자로 일컬어진다. 그 차이는 모순과 대립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차이로 인해 ‘군신의 의리를 세워 백세에 사표가 된 백이의 면모’는 보다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연암의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연암의 백이론은 백이가 북벌의 상징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믿음을 걷어내고 백이론의 전통 속에서 다시 보아야 하며, 북벌과 북학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에서 신하의 행동을 규율했던 에토스의 차원에서 다시 논해야 한다. 연암에게 백이는 무왕과 같은 성인으로서, 미자·비간·기자·태공과 같은 인자로서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훌륭한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6. 남은 문제

본고는 연암 박지원의<백이론>상하 편 내용을 재점검하여 그 속에 담긴 박지원의 의식지향을 되짚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

38) 宋文欽, 『閒靜堂集』, <伯夷論>下, “泰伯三以天下讓, 而文王三分天下, 均之爲至德焉. 微子適周, 而箕子竄於朝鮮, 均之爲仁焉. 武王伐商, 而伯夷不事周, 均之爲聖焉. 道固有然者. 聖人而爲天子, 以聖人而不事, 斯所以立君臣之極於百世而爲之師也.”

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백이론>상하 편을 북벌과 북학의 관계들 속에서 해석한 지난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백이의 정치적 상징성, 즉 북벌과 동일시된 이미지는 다른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북벌과 북학의 자장 속에서만 백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이에 대한 논의라고 해서 무조건 춘추대이나 북벌론과 관련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백이론>상하 두 편은『열하일기』의 경우처럼 춘추대의와 관련된 문맥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글은 백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백이 담론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연암이<백이론>상하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요지는 정온과 김시습 등 전대의 지식인들뿐 아니라 윤기·송문흠·오재순·박제가·성해응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다룬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담론의 맥락을 무시한 채 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암의 견해를 특화하여 비판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매우 크다. 이 글에서 백이에 대한 연암의 비판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백이의 실체가 보다 선명해지고, 그 만큼 더 긍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더하여<백이론>상하 두 편은 백이에 대한 당대의 단선적 이해를 지양하고 입체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편에서는 수직적 구도 속에서 백이와 무왕과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하편에서는 수평적 구도 속에서 백이와 미자·비간·기자·태공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기왕의 백이 담론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고, 2차원의 좌표 위에서 백이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도와 권도·명분론과 혁명론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고, 미지·비간·기자·백이·태공 등으로 대표되는 군신관계와 그것을 규율

했던 에토스의 차이를 갈등 없이 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연암 박지원의 삶에도 일정 이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이론>상하 두 편을 통해 연암이 공통으로 강조했던 ‘천하와 후세를 위하는 마음’, 즉 ‘부득이함에서 발현된 인(仁)의 마음’은 연암의 정치관과 처세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인에 토대를 둔 백이형 에토스는 그의 삶과 정치적 행보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하여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예민한 감각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법고창신(法古創新)’과 같은 문학과론과도 일정 정도 맥이 닿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백이론>상하 편만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백이 이미지를 다룬 다른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다룬다고 해서 명확한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박지원의 문학 속에서 백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 만큼 그의 삶과 만나는 점점 또한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지원의 삶과 문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필자의 현 상태로는 여기까지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지원의 <백이론>을 어떤 맥락 속에서 다시 부각시킬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외 백이론의 다양한 변주 양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 한다. 현존하는 국내외 백이론의 같고 다름을 정리하는 작업은 연암의 <백이론>상하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 시대에 따른 의식의 변화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은 백이보다 태공을 긍정했고,³⁹⁾ 김창흡은 백이보다 허유와 무광을 추켜세우기도 했다.⁴⁰⁾ 중국 근대의 대표 문사인 노

39) 강혜정, 앞의 논문, 14면.

40) 金昌翁, 『三淵集』, 『漫錄』.

신은<채미(采薇)>란 작품에서 백이를 사슴고기를 뜯어 먹었던 속물에 비기기도 했다.⁴¹⁾ 언뜻 이행과 김창협, 노신 모두 백이를 부정하여 그 차이를 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층위가 굉장히 다르다. 연암에게서 근대를 찾는 노력이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연암의<백이론>과 노신의<채미>를 비교하는 작업은 연암의 위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金時習, 『梅月堂集』, 한국문집총간.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成海應, 『研經齋集』, 한국문집총간.

宋文欽, 『閒靜堂集』, 한국문집총간.

吳載純, 『醇庵集』, 한국문집총간.

尹 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李 苻,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鄭 蘊, 『桐溪集』, 한국문집총간.

許 薰, 『舫山集』, 한국문집총간.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상중하, 돌베개, 2007.

박제가 지음, 정민·이승수·박수밀 옮김, 『정유각집』상중하, 돌베개, 2010.

강혜선, 『박지원 신문의 고문 변용 양상』, 태학사, 1996, 101~102면.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25~126면.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태학사, 2005, 70면.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112면.

41) 김민호, 「계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백이·숙제 고사 연구」, 『한중소설논총』, 한국중
국소설학회, 2002, 50~53면.

- 강혜정, 「백이 속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34집, 한민족 문화학회, 2010.
- 김민호, 「계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백이·속제 고사 연구」, 『한중소설논총』, 한국 중국소설학회, 2002, 50~53면.
- 김석근, 「조선시대 군신관계의 에토스와 그 특성-비교사상적인 시각에서」, 『한국 정치학회보』29집, 한국정치학회, 1995.
- 김영은, 「백이론의 전통과 박지원의 백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6면.
- 김주백, 「왕안석의 산문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22집, 근역한문학회, 2004.
- 김철조, 「연암 박지원의 사유양식과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81~184면.
- 왕원주, 「조선후기 북벌대이론의 변화와 영향-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40집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 이성형, 「연행록의 백이 속제 관련 한시 연구 -임란 수습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31집, 근역한문학회, 2010.
- 이현식, 「〈문승상사당기〉, 북학의 논리와 대비의 미학」, 『고전문학연구』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 『동방학지』12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357~361면.
- 정우봉, 「한문 산문의 분석 방법과 실제 비평-조선시대〈백이열전〉비평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 허태용, 「17·18세기 북벌론의 추이와 북학론의 대두」, 『대동문화연구』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ABSTRACT

An Aspect of *Boyi* Accepta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 rereading of *Boyiron*(two volumes) of Yeonam Park Jiwon -

Lee, Hong-Shik*

This paper was planned under macroscopic aim which was to research certain aspects of *Boyi* acceptance and historical context of critic discourse on *Boyi* in Joseon era. *Boyi Liezhuan* of *Shiji* written by *Simaqian* was the most text read through Joseon era. This diligently reading could brought political critic on *Boyi Liezhuan* and various debates surrounding *Boyi*. The study on these critics and discourses can be good windows to understand not only aspects of *Boyi* but also that time.

Therefore this paper made an analytical text with *Boyiron* written by *Yeonam Park Jiwon* standing on center of debate. Then this paper reconsidered discussions done until now and read *Park Jiwon's* consciousness directivity. So this paper revealed a certain aspect *Boyi* discourse and *Boyi* acceptance in the late Joseon. That time, *Jeong On*, *Kim Sisuep*, *Yoon Gi*, *Oh Jaesun*, *Song Munhuem*, *Park Jaega*, *Sung Haeung* etc consisting of historical context on *Boyi* discourses representing *Boyi* theory, tried new reading through putting *Boyi* argument of *Park Jiwon* into *Boyi* discourse. Meanwhile researchers understood *Yeonam's Boyiron* in political contexts that was the conquer the north and *Bukhak*. However *Yeonam's Boyiron* and *Yeonam's* the conquer the north argument were not close each other and were not found critical intention on *Boyi*.

As a result, discussing *Boyiron* only in the field of the conquer the north and *Bukhak* could not exist. Also it closely related established discourses surrounding *Boyi*. *Yeonam* combined understanding generally

* the researcher of East-Asia Culture Institute in Hanyang University / flyingk@han-mail.net

on *Boyi* through *Boyiron* with not unilinear understanding of his time but various understanding. He noticed relation *Boyi* and *King Mu* in vertical structure in the first volume and focused relation *Boyi* and *Mija*, *Bigan*, *Gija* and *Taegong* in horizontal structure in the second volume. Through this, he solved two important problems become controversy and accurately located position of *Boyi* on two dimensional coordinate. Which overcame contradiction between justification and revolution. Which combined differences of the ruler and the ruled's relation represented for *Miji*, *Bigan*, *Gija*, *Boyi*, *Taegong* etc and ethos ruling this relation without conflict. *Park Jiwon*'s such directivity consistently influenced his use of life centered on endurance.

The macroscopic aim set in this paper is into these result, which can draw additional conclusion like followings. Many people such as *Yoon Gi*, *Oh Jaesun*, *Song Munhuem*, *Park Jaega*, *Sung Haeung* etc participated in *Boyi* discourses and mass produced various critics. These critics mainly dealt with justification and revolution, ethos ruling the ruler and the ruled's relation, and patience. The range of these critics can help to reveal category of *Boyi* acception and the directivity and more.

Key Words *Park Jiwon*, *Boyiron*(伯夷論), *Boyi* discourse, consciousness directivity, the conquer the north, *Bukhak*(北學), the ruler and the ruled's relation, ethos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